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 지수 127p, 중고선가 지수 88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7p(-1p, WoW), 중고선가 지수는 88p(-1p, WoW)로 전 주 대비 하락함. 현대미포조선이 50,000DWT급 MR탱커 2+1척을 수주했고 2021년 하반기 인도 예정으로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이 360,000CBM급 LNG Barge 2+2척을 수주했고 인도는 2022년과 2023년 예정으로 보도됨. (Clarksons)

Chinese iron ore demand helps capesize rates complete a full week of growth

브라질 철광석 수출물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철광석 수요 증가로 인해 Capesize 벌크선 운임은 일주일 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됨. Baltic Capesize 지수는 지난 월요일 이후 +88% 오른 1,523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주요 5개 노선의 운임은 지난 월요일 이후 +60% 상승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US rig count decline seen slowing

에너지원 가격의 안정세로 인해 미국 Rig(시추장비) 수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보도됨. 3월 이후 두자릿 수 감소세를 기록해왔지만 지난 주 5기 감소에 그쳤다고 보도됨. 현재 미국 내 Oil rig 수는 199개이며 지난해 같은 시기에 Oil rig 수는 788기라고 보도됨. Gas rig 수는 지난 주 대비 2기 증가한 78기라고 보도됨. (Upstream)

QP, 곧 LNG선 용선 협상 개시

Qatar Petroleum(QP)은 향후 수 주 내에 자사가 필요로 하는 LNG선을 발주해 줄 선주 선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외신에 따르면, 카타르가 발주할 LNG선의 용선 제공업체 선정 입찰에 무려 30여개의 선주들이 참여하여 경쟁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VLGC 시장 휘청

미국의 LPG 공급량 감소로 인해 VLGC 시장이 휘청이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5월 첫 주 VLGC 운임은 하루 40,000달러였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손익분기점 이하로 떨어졌다고 보도됨. 앞으로 수 주 내로 운임이 하루 10,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연말까지 연장…대형 3사는 제외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달 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보도됨. 최근 조선업이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됨. (머니투데이)